

장성 공용버스터미널 인근 오래된 건물 ‘핫플레이스’ 될까



장성군이 읍시가지 내 오래된 건축물을 활용하기 위해 운영자 모집을 공고했다. 교통과 상권이 밀집된

지역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건물이 위치한 곳은 장성공용버스터미널 인근(장성읍 영천리 1273-

1960년대에 건립 지상1층 215㎡ 규모... 군, 운영자 모집 오는 3월 8일까지 신청서 제출...오는 7월 무렵 영업 개시

16번지)이다. 광주에서 장성읍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자리잡고 있어 쉽게 눈에 띈다. 또 인근에 대형마트나 상가들이 즐비하다. 한때 주차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었으나 최근 해결됐다. 장성군은 방치되어 있던 민간주차장 부지를 사들여 쾌적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이 주차장 안쪽에 해당 건물이 있다. 1965년에 지어진 건축물로, 주로 창고 용도로 쓰였다. 지상1층 65평

(215㎡) 규모를 지녔으며 외관은 큰 손상 없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과거에는 노후된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방법이 일반적이었지만, 근래에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건물이 지닌 역사가 그 자체로 디자인과 콘텐츠가 되는 것이다. 장성군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철거보다는 존치 후 위탁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건물의 용도는 신청자의 제안에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운영자 신청 자격은 공고일(1월 8일) 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만20세 이상)이나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다. 신청서는 오는 3월 8일까지 장성군청 4층 미래성장개발과(061-390-7825)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시설물의 운영 용도와 사용 계획이 명시된 제안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또

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베드에 게재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3월 중 장성군 누리집(홈페이지)에 낙찰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운영자가 확정되면 리모델링 공사에 이어, 오는 7월 무렵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수익 허가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장성군 관계자는 “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은 다수의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교통의 허브”라면서 “친절하고 성실하게 운영해주시길 분들의 많은 사랑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구례군, 떡 제조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생 모집

다음달 26일까지 관내 주소 둔 여성 25명...교육비 무료

구례군이 농촌여성 기술창출 소득 화와 전통식 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역량 있는 농촌여성 인적자원 발굴을 위해 나섰다. 군은 오는 3월부터 진행할 떡 제조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생을 2월 26일까지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25명이고, 신청자격은 구례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여성이 된다.

떡 제조기능사 자격증은 곡류, 두류, 과채류 등의 재료를 이용해 각종 떡류를 만드는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필기(떡제조 및 위생관리) 및 실기(떡제조 실무)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구례군은 정기 기능사 3회 시험 일정에 맞추어 오는 3월부터 12월 까지 총 10회에 걸쳐 40시간의 필기

및 실기교육을 편성해 농업기술센터 내 가공교육장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희망자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www.gurye.go.kr/farmtech/>)를 참고해 농업기술센터 및 가까운 각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생활지원팀(780-2083)에 문의하면 된다. **구례=박진호 기자**

거리 수놓은 ‘국향만리 화순8경’

화순군,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완성



화순군은 지역 대표 축제인 ‘국향만리 화순8경’ 작품을 주제로 한 ‘국향만리 화순8경’ 작품이 완성되며 화순읍 시가지에 벽화거리가 조성됐다고 밝

혔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인 ‘우리 동네 미술’로 추진된 벽화거리는 금호아파트와 부영 6차 아파트의 옹벽에서 완성됐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국비 3억2000만원, 도비 2400만원, 군비 5600만원 등 총 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공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지역예술인 36명으로 구성된 작가 팀이 참여해 화순 8경이 담긴 총 8 작품을 벽에 수놓았다. 적벽, 운주사, 고인돌, 규봉암은 타일을 쪼개는 파타일과 모자이크 타일로 현대적인 디자인을 복합해 진행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설명절 담양 농특산물로 정을 나누세요”

2월 2~4일 용산구 온라인 직거래·4~5일 서울 양천공원에서 직거래 장터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담양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해 서울 직거래 장터와 농특산물 전문 판매장 ‘담양장터 물’에서 특별 할인판매를

진행한다. 2월 2일부터 4일까지는 자매도시 용산구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는 택배 직거래장터는 용산구 주민들에게 주문받은 담양 농특산물을 택배로 발송하는 택배 직거래 판매를 추진한다. 이어 4일과 5일에는 서울 양천구 양천공원에서 설맞이 직거래 장터에 참여해 대대포막걸리, 죽제품, 정통장류, 참기름 세트 등 담양의 특산품도 선보인다. **담양=박종영 기자**

아울러 지난 18일 개장한 담양장터 물에서는 설을 맞아 지역에서 생산된 쌀, 한과, 장류, 참기름, 전통주, 떡갈비, 족로차 등 지역 47개 업체에서 생산된 300여 품목을 10% 할인하며, 전 구매고객에게 ‘대숲맑은 담양 쌀’ 500g을 증정한다. 군은 설맞이 직거래 행사를 통해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맛과 엄선한 담양 특산물의 건강함으로 소비자 사로잡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최형식 군수는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가족의 건강을 물론 소중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품격 높은 담양 농특산품을 엄선해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나주시, 광역철도 노선... ‘광주 상무역 출발’ 최종 제안

‘광주-나주 간’ 경유 노선 논의

나주시가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 구축 안으로 ‘광주 상무역 출발’ 노선안을 최종 제안해 관심이 모아진다. 나주시는 전날 청사 이화실에서 ‘5대 선도정책과제’ 중 하나인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망 구축’ 논의를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산하 ‘광역철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노선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망’ 구축은

나주시가 영산강 생태 복원, 마한사 복원 체계화와 함께 차기 대선국정과제 채택을 추진하는 5대 선도정책과제 중 핵심 현안이다. 광역철도망은 단일 생활문화권 벨트화를 통해 인적·물적 자원교류를 촉진하고 인구유출과 교통정체 해소, 관광산업 활성화 등 상생 발전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시는 현재 연구용역 중인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망을 반영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광역철도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상무역-서광주-대촌-남평-혁신도시-나주역-동신대-노안역-평동역’을 경유하는 노선안을 최종 제안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호남 상생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이번 사업이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 가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 군 <도문대작>

